

## 신후담의 〈小學筭疑〉연구\*

- 분절체계를 중심으로

박 순 남\*\*

### 차 례

- |                              |                       |
|------------------------------|-----------------------|
| 1. 서론                        | 1) 중국학자 이성 설의 수정 및 보완 |
| 2. 신후담과 이성의 《소학》 분장·<br>분절체계 | 2) 분장·분절단위의 정세화(精細化)  |
| 3. <소학차의>의 분장·분절 준거          | 4. 주석 내용의 특징과 그 의미    |
|                              | 5. 결론                 |

### 국문초록

이 글은 하빈 신후담의 <소학차의>를 중요한 텍스트로 삼아 18세기 소학학의 중요한 성과를 반영한 그의 《소학》 분절에 대한 학술적 의의와 주석적 특징을 논한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신후담은 분장·분절이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 여겨 《소학》의 각 조목이 일정한 의미 연관을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의미 단위로 분절하였다. 둘째, 신후담은 중국학자 이성이 세운 분절 개념이 내, 외편을 관통할 수 있는 의미적 접합점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1010467)

\*\* 경성대학교 한문학전공 시간강사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하여 이씨의 설을 대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분절의 준거를 삼아 분절 명칭을 새롭게 정하고, 그에 따라 분속된 조목도 달리 정하였다. 셋째, 신후담은 《소학》 전편에 대하여 논지 접속에 따라 분절의 명칭을 새롭게 정하고, 그에 따른 조목의 분속도 달리하여 《소학》 본문 386조목에 대하여 내편 입교 편을 3절, 명륜 편을 5장 30절, 경신 편을 4장 22절로 나누었고, 계고 편은 모두 10장 21절, 외편 가언 편은 10장 39절, 선행 편은 8장 54절로 나누어 내, 외편 386조목을 37장 169절로 분절체계를 세웠다. 이는 주자가 분절로 경전을 해석하였던 학문 방식으로, 조선후기 소학사에 《소학》에 경학 연구의 학문 방법을 적용한 독자적인 논의이다. 넷째, 선행 편 제 42조는 봉우 장에 소속되었으나, 신후담은 계고 제 33조와 조목의 의리가 같다고 보고 장유 장에 소속시키면서 선행 편에 별도로 봉우지교 장을 세우지 않았다. 당시 《소학》의 분장은 주자가 체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는 진전된 논의로 정해진 《소학》의 편제에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소학》 본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논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성호의 《소학질서》를 《소학》 본문 전면 주석함으로써 《소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었던 성호의 소학설을 적극 수용 지지하면서 성호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신후담의 《소학》 연구는 조선후기 소학학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소학》을 분장 분절로 이해한 논의에는 19세기 학자 유휘문의 《소학장구》(1830)와 유종교의 <소학설>(1881)이 있었으나, <소학차의>는 이들 보다 앞서 이루어진 성과물로 18세기 초 《소학》의 분절에 대한 이해를 살필 수 있는 참신한 저술이다. 둘째, 중국학자 이성이 《소학》의 분절체계를 세웠으나, 실제로 분속된 것은 내편에 한정된 반면, 외편까지 확장하여 각 조목에 대한 의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학자에 의한 새로운 분절 이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셋째, 《소학》 본문의 본지를 분절로 이해한 조선후기 학자의 논의는

분절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분절에 따른 조목의 분속과 이로 인해 본문의 해석에 대한 각 학파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신후담의 분장 분절은 당시 제가들의 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분절체계를 세우면서도 분절개념을 새로이 정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산출하였다. 넷째, 선행 편에 봉우지장을 두지 않은 분장체계는 신후담 이후의 조선학자의 분장 분절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도로, 신후담은 주자의 《소학》 편장 체계를 준수하면서도 편차 조절의 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문의 의리에 따라 경전을 해석하려는 학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소학차의>의 분절체계는 안정복의 《하학지남》의 편제와 관련하여 이들 학파의 《소학》 학문 방법론에 대한 일정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신후담, 이익, 소학차의, 소학질서, 소학장구, 성호학파, 분장분절체계

## 1. 서론

하빈 신후담(1702~1761)에 대한 연구는 산재해 있던 그의 문집이 간행되면서,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규모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간의 성과물로 일찍부터 서학과 관련한 논의가 연구되었고,<sup>1)</sup> 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신후담의 저술

1) 최동희, 『신후담·안정복의 서학비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5.

김철현,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천주학 비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설충수, 『유학과 서학의 상제(천주)에 관한 연구-신후담의 서학변을 중심으로』,

에 경학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학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는데 그의 경서 해석의 특징을 밝히려는 연구를 통해 그의 경학관의 일부가 밝혀졌다.<sup>2)</sup> 이들 학자의 논의 중에서 특히 신후담이 성호학을 계승하여 그 방법론으로 고본대학을 새로이 분장한 것에 대한 의의를 밝힌 연구는<sup>3)</sup> 조선후기 경학 연구의 중요 쟁점 중의 하나가 분장·분절에 대한 논의였음을 알 수 있다. 신후담의 경학 연구 방법론은 여러 경서에 적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주목해서 볼 것이 <소학차의>이다. 차의(筮疑)

---

승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서종태, 「이익과 신후담의 서학논쟁」, 『교회사연구』 제1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 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16, 한국사상사학회, 2001.

\_\_\_\_\_, 「하빈 신후담의 학문과 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하빈 신후담의 四七論 전개」, 『한국실학연구』 제22집, 한국실학학회, 2011.

김경문, 「경전간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서학에 대한 조선후기 지식인의 이해」,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동희, 「서학 수용의 두 가지 반응, 신후담과 정약용」, 『정신문화연구』 36,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3.

2) 최석기, 「하빈 신후담의 『대학』 해석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제36집, 동양한문학회, 2013.

최석기·정소이, 『하빈 신후담의 대학후설과 사칠동이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최영진·이선경,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7집,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4.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경학사상 서설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7집,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4.

임부연, 「신후담(愼後聃) 『대학후설(大學後說)』의 새로운 성찰 - 이패림(李沛霖)의 『사서주자이동조변(四書朱子異同條辨)』과 비교하여」, 『종교와 문화』 31, 2016.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周易)』 해석의 특징 - 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 『한국 철학논집』, 제52호,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 최석기, 앞의 논문, 269-306쪽.

는 독서 후의 자신의 관심사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학차의>는 신후담이 《소학》에 대한 자신의 논변을 적어놓은 차기류(筭記類)에 속하는 저서물에 해당된다. 보통의 차기류나 문답류가 쟁점화 되는 문제만을 거론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달리 신후담은 《소학》 전편에 대하여 각 조목마다 자신의 견해를 밝혀두고, 분절개념을 세워 조목을 분속하였다.

《하빈선생전집》에는 <소학차의>외에는 《소학》에 대한 설이 거의 없으나, 《성호선생전집》에는 성호가 하빈에게 보낸 편지 글 중 <答愼耳老(신후담의 자)><sup>4)</sup>에 일부가 있고, <答愼耳老小學問目><sup>5)</sup>에는 《소학》 본문에 수록된 명물고증과 본문 해석에 대한 답변 22조목이 들어 있다. 특히 두 편지 글에 공통적으로 질의된 ‘침불측(寢不側)’은 《소학》 해석에 대한 성호의 참신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이는 주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소학서류인 <내교>가 《하빈집》권 20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녀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덕성, 용모, 말씨, 직무 네 가지로 나누고 그 아래 여러 경서와 전에서 채록한 내용을 엮어 책을 만들어 두었다.<sup>6)</sup> 이 글은 주자의 《소학》을 분절로 이해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기에 부녀자의 소학서로 <내교>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만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이 글은 <소학차의>를 주 자료로 삼아 검토하였다.

신후담의 <소학차의>는 그의 연보에 따르면 성호 이익을 배알한 그해(1724)에 쓰기 시작하여 이듬해 그의 나이 24세(1725)에 완성한 것이다. 이 때에 스승인 성호와 주고 받은 편지 속에 소학문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학차의>의 저술은 성호의 일정한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李瀼, 『星湖先生全集』 권22, 『書-答愼耳老』

5) 李瀼, 『星湖先生全集』 권22, 『書-答愼耳老小學問目』

6) 愼後聘, 『河濱先生全集』 권20, 『內教』:內教之法 有四德言容是已 原之而摠其要列之而致其詳 風詩以興之 稽傳以敦之翼之 以秦漢以來嘉言善行此諸篇之大致也.

<소학차의>의 중요한 특징은 《소학》의 내용을 분장 분절의 구조를 통하여 이해하였다는 것에 있다. 경전의 분장과 분절을 통하여 장과 절 상호간의 의미접속과 전체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주자의 학문 방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주자의 학문 방법은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서 특히 《대학》과 《중용》의 분장·분절에 주목되면서 조선 전기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경학 연구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다. 이러한 학문의 방식에 주목하여 일찍이 《소학》을 분절로 이해하였던 사람이 원나라 학자 이성이었다. 이성은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 통상 이씨로 지칭되었는데, 이씨의 분절체계는 이이가 《소학제가집주》 <총목>에 수록하면서<sup>7)</sup>, 이씨의 분장 분절에 대한 적합성의 여부와 이에 따라 《소학》의 내용을 분절 체계로 이해하여 정리하려는 논의가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이성의 분장 분절의 명칭에 대한 논의와 이에 분속된 조목이 논지와 맥락관통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면서 17세기 이후 《소학》 연구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진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학차의>이다.

<소학차의>는 《소학》 전체 386조목에 대하여 각 조목의 의미를 분석하여 이를 분절 단위로 구분하고, 각 조목의 의미를 통합하여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주자의 《대학장구》나 《논어장구》와 마찬가지로 《소학》을 장구(章句)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저술물이다. 특히 신후담의 《소학》 분절에 대한 논의는 《대학》과 《중용》의 분장·분절에 대한 논의가 경학의 연구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학문 방식이 《소학》에까지 적용되었던 구체적인 결과

7) 李氏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지 않으나, 元나라 李成이 『小學纂疏』 4권을 집필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하사신이 편찬한 『諸儒標題小學集成』에 ‘纂疏曰京兆 李氏’로 표기된 내용을 옮긴 『소학집주』 총목에 수록하여 이씨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성으로 보는 것은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박순남, 『조선후기 소학학의 형성과 전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쪽, 각주 7)번 참조.

물로 조선후기 《소학》의 학문적 위상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학》을 분장 분절로 이해한 논의에는 19세기 학자 유휘문의 《소학장구》가 있다. 이에 대하여 《소학》의 내·외편을 모두 분석하여 분절의 개념을 세워 6편 43장 101절의 체계를 정리하고 《소학장구》 편찬의 의의를 밝힌 연구가 있었고,<sup>8)</sup> 이후 19세기 학자 유중교가 19장 67절로 다소 줄여 이성의 분절체계를 조정한 <소학설>을 검토한 논의가 있었다.<sup>9)</sup> 그런데 <소학차의>는 조선의 학자에 의한 독자적인 소학 분절체계로 주목받았던 유휘문의 《소학장구》(1830)와 이성의 설을 대부분 수정하는데 목적을 둔 유중교의 <소학설>(1881)보다 앞서 이루어진 성과물이다. 또한 <소학차의>는 중국 주석가들의 설을 차용하기도 하였지만, 옳이 성호의 《소학질서》를 주석으로 《소학》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 성호의 《소학질서》는 《소학》 본문의 인물과 사건의 전고에 대한 고증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저술서임을 상기할 때 주석의 내용에 따른 본문 해석의 의도는 성호학파의 《소학》해석에 대한 일정한 경향성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하빈 신후담의 <소학차의>를 중요한 텍스트로 삼아 18세기 소학학의 중요한 성과를 반영한 그의 《소학》 분절체계를 이성의 분절체계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 주석 내용의 특징과 그 의미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신후담의 《소학》 분절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조선후기 소학학에서 가지는 일정한 의미와 조선후기 《소학》 연구가 조선의 독자적인 《소학》 연구로 진전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8) 박순남, 「호고와 유휘문의 『소학장구』에 대하여-『소학』편장의 분장 분절체계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4, 동양한문학회, 2012.

\_\_\_\_\_, 「『소학장구』의 주석방식에 관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40, 동양한문학회, 2015.

9) 박순남, 박사학위논문, 124-126쪽.

## 2. 신후담과 이성의 《소학》 분장·분절체계

주자는 《소학》의 편차를 내편 입교, 명륜, 경신, 계고 편과 외편 가언, 선행 편으로 6편을 두고 명륜 아래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 5장과 경신 아래 심술, 위의, 음식, 의복 4장을 두었다. 계고는 입교, 명륜, 경신을 총괄하는 편이고, 가언과 선행은 내편을 확장 실증하는 편임으로 내편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그 아래 입교, 명륜, 경신으로 장을 두어 6편 19(가언 편 경신 아래 독서장 포함)장으로 나누었다. 이성 또한 주자의 체계를 그대로 준용하면서 내편 명륜, 경신 편 아래 9장의 체계를 갖추되 주자가 분절하지 않은 입교 편을 분절하여 나누어 두었다. 계고 편과 가언, 선행 편도 내편의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아래 입교, 명륜, 경신 장을 두되 별도로 분절하지 않고 9장을 9절로 두었다. 신후담 또한 주자의 《소학》 편차를 준용하여 내편과 외편이 동일한 체계가 되도록 편과 장을 나누고 그 아래 분절의 명칭을 세워 그에 따른 조목을 분속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내편 입교, 명륜, 경신 편 분장 분절체계>

篇	이성의 분절체계		신후담의 분절체계		
	章	節 (조목)	章	節 (조목)	
內篇	立教	立胎孕之教(1)	0	統論設教之方受學之道(1-2)	
		立保傅之教(2-3)		篇題所謂師之所以教者(3-8)	
		立學校君政之教(4-8)		3절	
		立師弟子之教(9-13)			
	0	4절	0	3절	
	明倫	明父子之親	明事親之禮(1-4)	明父子之親	言人子事親之常禮(1-6)
			明凡爲人子之禮(5-10)		言人子持身之道(7-10)
			明敬親命之禮(11-15)		廣論孝敬之道(11-15)
明廣愛敬之禮(16-20)			明愛敬父母(16-18)		



		明諫過之禮(21-23)		廣愛敬之說也(19-20)		
		明侍養疾病之禮(24-25)		言諫過之禮(21-23)		
		明謹身之禮(26-27)		言養疾之事(24-25)		
		明祭享之禮(28-33)		親沒後事言之(26-28)		
		明孝親之道(34-36)		祭享之事(29-33)		
		明不孝警之(37-39)		統論孝親之道(34-36)		
		10절		言不孝之戒(37-39)		
				11절		
		明君臣之義		明事君之禮(40-51)	明君臣之義	言人臣君事之常禮(40-51)
				明爲臣之節(52-59)		勉忠直之節(52-59)
	2절		2절			
	明夫婦之別	明婚姻之禮(60-64)	明夫婦之別	言婚姻之禮(60-64)		
		明男女之別(65-66)		謹夫婦之道(65)		
		明去取之義(67)		汎論男女遠別之道(66)		
		明寡婦之子(68)		明婦德之所以正(67)		
		4절		言遠別之道(68)		
		5절				
	明長幼之序	明敬兄之禮(69-70)	明長幼之序	明長幼之不可以無序也(69)		
		明進退應對灑掃飲食燕射行坐之禮(71-88)		言少之事長(70)		
				明事長之常節也(71-76)		
侍坐之節(77-86)						
2절	廣事長之敬(87-88)					
	5절					
明朋友之交	明輔仁之職(89)	明朋友之交	言朋友相與之道(89-92)			
	明責善之義(90-91)					
	明不可則止(92)					
	明取友之義(93-95)		言取友之道(93-96)			

敬身		明辭受賓主之儀(96-99)		賓主之禮(97-99)
		5절		3절
		通論(100-108)		通論(100-108)
	5장	1절	5장	1절
		28절		30절
	明心術之要	明敬有畏懼之義(1)	明心術之要	存心事處之道(1-2)
		明敬乃禮之本(2)		言治心身之切(3-8)
		明涵養本原(3-8)		持身之必循乎禮(9)
		明持敬之功(9-11)		言內外交養之道(10)
		明畏之一字爲切要工夫(12)		言篤志力行好學不倦之事(11)
		5절		6절
	明威儀之則	明二十而冠實威儀之始(13)	明威儀之則	威儀本末篤該終始殫奉(13)
		明當勉威儀(14-31)		正威儀之道(14-24)
		明威儀心術交相培養之禮(32-33)		言所遇之事變常而威儀(25-26)
		3절		言平居燕處時威儀(27-28)
明衣服之制	明責以成德(34)	明衣服之制	言接人時威儀(29-31)	
	明古人致謹於衣服(35-38)		言內外交修之驗而示人之意(32-33)	
	明未成人不當加以成人之服(39)		6절	
	明不可恥惡衣食而忘心德之重(40)		責以成德(34)	
	4절		親存親沒之不同(35)	
			示衣服當然之則(36-38)	
			言童子不得備成人之服(39)	
			反之於心術勉其立志必固無撓於口體之奉(40)	
			5절	

		明飲食之節	明飲食之節(41-46)	明飲食之節	明飲食之不可不慎(41)
					言侍燕尊者之時尤致其慎(42)
					示飲食中適之道(43)
					專以酒肉二者 言之以致警戒之意(44-45)
					因飲食之說而反之心術(46)
			1절		5절
	4장		13절	4장	22절
내편	3편	9장	41절	9장	55절

<계고 편, 외편 가언 선행 편 분장 분절체계>

篇	이성의 분절		신후담의 분절			
	章	節(조목)	篇	章	節(조목)	
內篇 稽古	立教	母教(1-2)	立教	立教	實立教之言(1-4)	
		父教(3-4)				
	1장	2절	1편	1장	1절	
	明倫	明父子之親(5-21)	1절	明倫	明父子之親	明事生之禮(5-17)
						明喪死之禮(18-20)
						明君子之敬奉遺體而終身不敢忘孝(21)
			3절			
	明倫	明君臣之義(22-26)	1절	明倫	明君臣之義	人臣進退之正道(22)
						綱常之大義(23)
						謹其陰暗之細行(24)
						明不事二君(25-26)
			4절			
明倫	明夫婦之別(27-30)	1절	明倫	明夫婦之別	明夫婦之相接以禮(27)	
					明男女之當遠其嫌(28)	
					明烈女不更二夫之節(29-30)	
		3절				

			明長幼之序(31-33)		明長幼之序	明其兄愛弟之道(31)
			1절			明其弟事兄之道(32)
			明朋友之交(34-35)		明朋友之交	相讓之禮(33)
			1절			3절
		1장	5절	1편	5장	明君子以友輔仁之道(34)
						明交際之間貴乎以敬而相接(35)
						2절
		1장	5절	1편	5장	15절
		敬身	言心術(36-38)	敬身	言心術	言心術(36-38)
			言威儀(39-40)		言威儀	言威儀(39-40)
			言衣服(41-43)		言衣服	言衣服(41-43)
			言飲食(44)		論飲食	論飲食(44)
			4절			4절
			通論(45-47)			通論(45-47)
			1절		1절	
		1장	5절	1편	4장	5절
稽古	1편	3장	12절	稽古	3편 10장	21절
內篇	4편	12장	53절	內篇	4편 19장	76절
	篇	章	節	篇	章	節
外篇	嘉言	廣立教	良知良能之德性(1-2)	立教	廣立教	主言明倫之事(1-2)
			灑掃應對進退以篤其行(3-4)			主言敬身(3-4)
						言學之道(5-12)
		立志行己之事(5-14)	總論立志行己之大致(13)			
						言明倫之事勉其推敬身之切(14)
		1장	3절	1편	1장	5절

		廣明倫	廣父子之親(15-28)	明倫	廣父子之親	言事生之禮(15-22)		
			1절			言喪死之禮(23-28)		
			廣君臣之義(29-38)		廣君臣之義	言當官者之事(29-32)		
			1절			汎言居下位者敬士之常禮(33)		
			廣夫婦之別(39-46)		廣夫婦之別	當官處事之道(34-37)		
			1절			言官事之當務(38)		
			廣長幼之序(47-50)		廣長幼之序	言婚姻之禮(39-44)		
			1절			專以婦人之道(45-46)		
			廣朋友之交(51-53)		廣朋友之交	兄弟之讐必由於婦人(47)		
			1절			戒兄弟之不能篤矣(48-49)		
			廣通論明倫之義(54-55)			反其意而勉之(50)		
			1절			3절		
			1장		6절	1편	5장	15절
			廣敬身		廣心術之要(56-71)	敬身	廣心術之要	正超向之道及用力之大要(56-63)
			1절					輔就切近處言之以致反覆丁寧之意(64-69)
				2절				

		廣威儀之則(72-76)		廣威儀之則	明威儀之當循禮義(70)
		1절			明勅厲之不可不篤(71)
		廣衣食之制(77-78)		廣衣服飲食之節	勉其用功於辭令容止之間(72)
		1절			勉其自治必嚴而不類錄變之惡(73)
					戒其出言之鄙薄(74-75)
					詳陳警省之道(76)
					6절
					廣衣服飲食之節(77)
					1절
	廣讀書爲學與異端之辨	廣讀書爲學與異端之辨(79-91)		其爲學之方 其所以特詳於讀書者	明細行之不可不謹而□其重於存心修身(78)
		1절			勉其移務外之心而着力於心身(79)
					專言讀書之事(80)
					詳言讀書之序(81-85)
					明讀書之不爲徒讀其文(86)
					示讀言爲學之始終(87)
					統言讀書之道(88)
					言尊閣經典之道(89)
					明爲學之當循其序(90)
					明先去異端之害然後可以入道所以闢其邪而反之正(91)
					10절
	2장	4절	1편	4장	19절
가언편	4장	13절	3편	10장	39절

善行	實立教	實家庭之教(1-2)	立教	實立教	實家庭之教(1-2)	言教男子之道(1)	
		實學校之教(3-6)			實學校之教(3-6)	言教女子之教(2)	
		實師弟子之教(8)			言師儒掌教之道(3-4)		
					言國家設教之法(5-6)		
	1장	3절	1편	1장	4절		
	實明倫	實父子之親(9-18)	實父子之親	明倫	實父子之親	實養生之道(9-11)	
						實喪死之道(12)	
						申言養生之道(13-15)	
						申言喪死之道(16)	
		1절				廣養生之道(17)	
					廣喪死之道(18)		
					6절		
	實君臣之義(19-26)	實君臣之義	明倫	實君臣之義	明敬謹之禮(19)		
明犯諫之節(20)							
明事君之不可有欺(21-22)							
					言當官任職之道(23-26)		
	1절				4절		
實夫婦之別(27-31)	實夫婦之別	實夫婦之別	明倫	實夫婦之別	終養其姑能守直信之節(27)		
					賑餉能行順正之道(28)		
					終始不變(29)		
					節行之尤卓(30)		
					貞烈之得於天職(31)		
	1절				5절		

			實長幼之序(32-41)		實長幼之序	明兄弟之出於天理之自然(32-33) 見其愛兄之得於本性(34) 見其愛弟之出於誠心(35) 示患難之宜同其愛(36) 示平居之宜同其樂(37) 是昏篤於同氣之情(38-39) 其論兄弟友悌之道(40) 汎言敬事尊長之道(41) 文義如內篇稽古所引虞芮一章 當屬長幼之序(42)
			實朋友之交(42)		無	9절
			1절			0절
			實通論明倫之義(43-53)			實通論明倫之義(43-53)
			1절			1절
		1장	6절		4장	25절
	實敬身		實心術之要(54-67)	敬身	明心術之要	此乃大易當慾懲念之功而學者所以治心不遇治此二者而已(54-55) 示治心之準則(56) 特明君子隱見之一致(57-58) 總結前二章之意(59) 明哭識爲先文藝爲後而欲其舍末而反本(60) 明爲義當勇趨利當怯而欲其遇欲而循理(61) 接人恭謹而無神侮之失(62) 言其平居燕閒而不解自勅當官處事而毋或怠忽(63)



						戒徇利權貪寶貨而忘其爲心術之累(64)
						勉其不以外物而累其心(65)
						明君子之不屑於外物者以其所志之有大於此(66)
						明君子爲己之學當以誠實而爲本(67)
			1절			12절
			實威儀之則(68-74)		明威儀之則	明威儀之不可忽(68)
						明威儀之本於心術(69)
						詳論威儀之則(70-71)
						申明威儀之本於心術(72)
						複單說威儀之則(73)
						因威儀而反之心術(74)
			1절			6절
			實衣服之制(75)			明衣服之宜尙儉素(75)
			1절			明飲食之宜尙淡泊(76)
			實飲食之節(76-81)		實衣服飲食之節	明凡於外物之奉己者 皆當徒的不獨衣食而已(77)
						明尙儉戒奢之道(78)
						專言飲食(79)
						專言衣服(80)
						因飲食之說而反之於心 勉其立志之不果於外物(81)
			1절			7절
		1장	4절	1편	3장	25절
	선행	3장	13절	3편	8장	54절
外篇	2편	7장	26절	6편	18장	93절
총계	6편	19장	79절	12편	37장	169절

신후담과 이씨의 설을 나란히 둔 것은 이씨가 분절한 수와 신후담이 분절한 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분절 개념과 그에 분속된 조목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씨는 《소학》의 386조목에 대하여 내편은 12장 53절, 외편은 7장 26절로 분절하여 주자의 6편 19장을 6편 19장 79절의 분절로 나누었다. 여기서 나눈 79절의 분절에는 계고 이하의 가언, 선행 편 아래 이씨가 별도의 분절개념을 세우지 않았지만, 예컨대 명부자치친 아래에 조목을 분속시켜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1절로 계산한 것이 포함되어있다.

여기에 반해 신후담은 내편 입교 편은 3절, 명륜 편 5장은 30절, 경신 편 4장은 22절로 나누었고, 계고 편은 다시 입교 1장 명륜 5장 경신 4장을 두고 10장을 21절로, 외편 가언 편은 10장을 39절로, 선행 편은 8장을 54절로 나누었다. 이로써 신후담의 《소학》 분절체계는 12편 37장 169절로 갖추어졌다. 이는 신후담이 《소학》을 내편과 동일한 체계로 두고 계고 편 이하 그 아래에 입교 편, 명륜 편, 경신 편을 두고 그 아래 각각 입교 1장, 부자치친 이하 5장, 심술 이하 4장을 두었기 때문에 내편을 준수한 편장 체계 아래 6편이 늘어나게 되었고, 장의 수는 37장이 된 것이다. 계고 이하를 내편과 동일하게 두고 주자의 《소학》 체계로 계산하여 보자면 6편 40장<sup>10)</sup>이 된다. 그러므로 실제 장수를 따져보면 오히려 3장이 줄었다. 신후담이 가언 편과 선행 편 10장의 광경신, 실경신 편 아래 의복과 음식 장을 한 장으로 합쳤고, 선행 편 10장의 실명륜 편에 봉우 지교 장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에도 가언 편 10장의 광경신 아래 의복과 음식을 한 장으로 합쳤으므로 실제 1장이 줄었다.

이씨의 분절을 살펴보면, 내, 외편 입교 장 아래에는 조목을 분속시켰으나, 실제로 분절된 것은 내편 입교 편, 명륜 편, 경신 편에 한정되어있

10) 내편 입교 아래는 별도의 장이 없으나 계고 이하는 입교, 광입교, 실입교로 그 장이 설정되어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각각 1장으로 계산하고, 가언 편 10장의 독서장을 포함하면 모두 40장이 된다.

어 완결된 체계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신후담의 분절은 계고 이하의 가언 편과 선행 편에도 내편의 체계와 동일하게 조목을 분속시켜두고 분절개념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완결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신후담의 분절은 《소학》 전편에 경계를 두고 세워지면서 장절의 조음관계를 이씨와 달리 해석하여 《소학》 본문의 조목이 소속된 경계가 달라진 점이 보인다. 또 선행 편의 봉우지장은 조선후기 《소학》 분절 관련 논의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는데 신후담의 분장에는 선행 편 아래에 봉우지장이 없다. 이는 장절의 구분이 달라지면 전체 장절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장 분절의 준거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 3. <소학차의>의 분장·분절 준거

18세기 소학학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소학제가집주》 <총목>에 수록된 이씨의 분절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소학》의 내용을 분장 분절의 구조를 통하여 이해하려는 논의였다. 그러나 대부분 《소학》을 분절로 이해한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주자가 《대학》이나 《중용》처럼 장구화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었으며,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부분적인 이견을 제출하였을 뿐 새로운 분절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신후담은 이씨가 《소학》을 분절로 이해하려고 하였던 학문적 정당성을 받아들여 그간의 조선 학자들의 학문성과를 바탕으로 《소학》에 대한 독자적인 분절체계를 수립하였다. 그의 논의는 《소학》을 경학 연구와 같은 분석 방식으로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조 경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1) 중국학자 이성 설의 수정 및 보완

신후담은 기본적으로 이씨 설을 지지하면서도 이씨가 분절하지 않았

던 계고 편 이하 외편을 분절하여 새로이 분장 분절체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이씨 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세운 분절체계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입교 편이 분절이다. 내편 입교 편은 모두 13개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자는 별도로 이를 분장을 하지 않고 1장으로 두었다. 이씨가 이를 ‘입태인지교(立胎孕之教:1)’, ‘입보부지교(立保傅之教:2-3)’, ‘입학교군정지교(立學教君政之教:4-8)’, ‘입사제자지교(立師弟子之教:9-13)’로 분절 개념을 정하고 그 아래 조목을 분속시키면서, 계고 편 이하로도 모두 입교 편을 분절하여 두었다. 이 문제는 주자가 입교 편을 분속한 예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되었고, 그 분절 개념의 적절성 여부도 문제시 되었다.<sup>11)</sup>

신후담 역시 내편 입교 편을 비롯하여 계고 편 이하 입교 편을 분절하였으니, 이씨의 입교 편에 대한 분절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 입교 편이 각기 일정한 뜻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경계가 있음을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입교 편을 분절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씨의 분절개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씨 설에 회의적이었던 조선 학자들의 비판적 논의를 지지하여 이씨 설을 대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분절의 준거를 삼았다. 다음은 신후담이 내, 외편 입교 편을 분절한 내용이다.

내편 입교	統論設教之方 受學之道(1-2) 篇題所謂師之所以教者(3-8) 篇題所謂弟子之所以學者(9-13)
계고 입교	實立教之言(1-4)
외편 가언 입교	主言明倫之事(1-2) 主言敬身(3-4) 言學之道(5-12) 總論立志行己之大致(13)

11) 박순남, 박사학위논문, 85-86쪽.

	言明倫之事勉其推敬身之切(14)
선행 입교	實家庭之教(1-2)
	實學校之教(3-6)
	言君子化一鄉之教(7)
	言聖賢開來學之教(8)

신후담이 세운 입교 편 분절 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편 입교 13조목은 3절, 계고 편 입교 4조목은 1절로, 외편 가언 편 입교 14조목은 5절로, 선행 편 입교 8조목은 4절로 분절하여 본문의 내용을 개념화하였다.

먼저 내편 입교 편을 살펴보면, 신후담이 세운 ‘設教之方 受學之道(1-2)’, ‘師之所以教者(3-8)’, ‘弟子之所以學者(9-13)’의 분절개념은 이씨가 세운 분절개념과 접합되는 점이 없으며, 새로이 정한 분절개념에 따라 그 아래 분속된 조목도 일부 수정되었다.

신후담이 입교 편에 대한 이씨 설을 수용하지 못한 근거에는 이씨가 세운 분절 개념이 내, 외편을 관통할 수 있는 의미적 접합점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입교 편을 분장한 이씨 설을 비관한 임영의 발언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씨의 立師弟之教는 ‘出就外傳’부터가 이미 師弟之教이니 家塾과 黨庠 및 司徒와 樂正 어디에 나가도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지금 弟子職 이하로부터 잘라서 그것만을 師弟之教로 말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또 아래 ‘興詩立禮’, ‘禮樂不可去身’, ‘賢賢易色’의 여러 장에 또 어디에 師弟子의 의미가 있는가?<sup>12)</sup>

12) 林泳, 『滄溪集』 권22, 『讀書筭錄- 小學』: 立師弟子之教 自出就外傳 已是師弟子之教 家塾黨庠 司徒樂正 無往而非是也 今截自弟子職以下 特謂之師弟子之教 何也 且此下興詩立禮 禮樂不可去身 賢賢易色 諸章 又何曾有師弟子意思 豈見弟子職中.

입영의 비판에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제 2조의 ‘10살이 되면 집 밖의 스승에게 배운다.’는 말 속에 이미 ‘입사제자지교(立師弟子之教)’의 뜻이 있기 때문에 9조 이하만을 ‘사제’로 경계를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는 <소학도>에 이씨의 분절 명칭에 ‘授受’ 두 자를 보태고, 앞의 ‘입태인지교(立胎孕之教)’와 ‘입보부지교(立保傅之教)’를 ‘입태육보양지교(立胎育保養之教)’로 조정하여 두었다. 이는 제 2조 이하부터 이미 조목의 내용 속에 ‘사제’의 뜻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후담은 제 3조 ‘幼子常視母誼’ 이하에서 제 8조 ‘樂正 崇四術立四教’까지를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경계 짓고, 제 9조 ‘弟子是則’ 이하에서 제 13조 ‘賢賢易色’까지는 ‘제자로서 배워야 할 것’으로 경계 지어 의미를 구분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 1조 ‘古者 婦人妊子’와 제 2조 ‘凡生子 擇於諸母 與可者’는 자연스레 가정에서의 가르침으로 통론하여 둔 것이다.

계고 편의 입교 편은 ‘實立教之言’으로 통칭하여 두었다. 계고 편의 입교 내용은 문왕의 어머니인 문임과 맹모, 공자가 자식을 가르친 방법을 수록하여 놓은 것으로 4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씨는 이를 ‘母教’와 ‘父教’로 나누어 두었는데, 신후담은 계고 편 4조목이 잉태에서부터 성장하여 학문에 나아가기까지 내편 입교 편을 실증한 것으로 보았다.<sup>13)</sup> 그러므로 별도로 분절하지 않고 이를 통론하여 두었다. 신후담이 이씨의 설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母教’와 ‘父教’의 분절개념이 내편 입교 편과 그 이하 가언, 선행 편을 입교 분절 명칭과 접합점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후담은 《소학》의 편차 아래 놓인 조목들이 일정한 의미 연관을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내편 입교 제 4조 ‘古之教者’에 대하여 제 5조 ‘人之有道也’에서 “내 생각

13) 愼後聃, 『小學筭疑』: 按此四章皆實立教之言 而太任之事 教之於胎孕之時也 孟母之事 教之於幼稚之時也 夫子詩禮之訓 教之於既長 就學之後也 其論立教之終始 畢舉無遺 而未章則又承前章之意 引聖人勉戒親切之語 以明學之所以爲急 而教之不可以已也.

에 이 장은 앞 장을 이어 가르치는 방법을 말한 것이지만, 명륜을 넘지 않는다.”<sup>14)</sup> 라거나 제 6조 ‘周禮大司’ 조목에서는 “내 생각에 이 장은 앞 장의 뜻을 이어 경신, 명륜의 일을 총괄하였으니, 육덕 육예는 경신에 소속되고 육행이 명륜의 일에 소속되는 것과 같다.”<sup>15)</sup> 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논조는 가언 편 입교 편 분절 명칭에 그대로 적용하여 입교 편 전체의 내용을 일정한 의미적 상관관계로 연결되도록 안배하였다. 선행 편은 사실상 이씨의 분절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분절 개념을 조금 달리하고, 그 아래 절의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밝혀두었다.

신후담의 내, 외편 입교 편 전체에 대한 분절체계를 살펴보면, 입교 편 의 각 조목이 일정한 의미 연관을 가지고 편성되었다고 보고 각 조목을 분절하였다. 입교 편은 옛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명시해 둔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명륜의 일과 경신의 일을 가르쳐 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소학》 학문의 목적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씨의 설을 수정 보완한 것은 《소학》은 입교, 명륜, 경신의 세 가지 강령으로 이루어졌으나, 《소학》의 학문 체계는 이 두 가지 일을 명확하게 세우는데 있음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후담의 입교 편 분절은 일정한 뜻에 경계지점을 세워 분절개념을 정하였지만, 한 조목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그 명칭이 명료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정한 부분이 있게 되면서 전체 입교 편 의 요지를 일목하 게 살필 수 있는 일관성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 2) 분장 · 분절단위의 정세화(精細化)

신후담은 기본적으로 이씨가 세운 분절 체계를 준거로 하여 분절 단

14) 慎後聃, 『小學筭疑』: 愚按此章承前章而言 所以教之者 不越於明倫也.

15) 慎後聃, 『小學筭疑』: 愚按此章承前章之意 而總論敬身明倫之事 如六德六藝敬身之屬也 六行明倫之屬也.

위를 세웠다. 특히 계고 편을 비롯하여 외편에서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내편 입교와 명륜, 경신 편이 경문에서 주로 발췌되어 그 의미의 구분이 확실한 반면, 계고를 비롯한 외편은 인물의 가언과 선행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조목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섞여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이유로 이씨가 계고 편 이하 외편에 대해 따로 분절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론해 볼 수 있다. 신후담 역시 이러한 고민이 있었는지 계고 편 이하 특히 경신 편의 분절은 이씨 설로 대체한 경우가 더러 많다.

이씨는 계고 편 경신 9조목을 ‘言心術’, ‘言威儀’, ‘言衣服’, ‘言飲食’으로 두었는데, 신후담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씨가 심술을 말한 것이다. 위의를 말한 것이다[李氏曰言心術, 言威儀也.]’고 말하고서는 해당 조목 역시 동일하게 두었다. 그리고 광경신 편에서도 역시 ‘이씨가 심술의 요체를 확장한 것이다. 위의를 법칙을 확장한 것이다. 의복과 음식의 절도를 확장한 것이다[李氏曰 廣心術之要, 廣威儀之則, 廣衣服飲食之節.]’고 말하고서 별도로 다른 언급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선행 편 경신 편에 분속된 28조목은 25개의 절로 지나치게 세세할 정도로 분절하기도 하였다. 이로 보건데 조목의 의미가 달라지는 지점에서는 매우 세밀하게 분절의 경계를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내편 경신 편 아래 명심술지요, 명위의지칙, 명의복지제, 명음식지절 4장 아래 46조목을 11개의 절로 분절 하였지만, 명음식지절은 장의 명칭을 그대로 절목으로 두고 6조목을 소속시켰다. 이에 반해 신후담은 경신 편 아래 4장 22개의 절로 분절하면서 명음식지절 6조목을 5개로 절을 나누고 분속시켰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분절의 경계를 명확하게 세우려고 한 그의 뜻을 볼 수 있다.

한 편으로 이씨가 분장한 것을 신후담이 분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씨는 선행 편 실경신 편을 심술, 위의, 의복, 음식 4장으로 체계를 유지해 두었지만, 신후담은 의복과 음식을 합하여 3장으로 분장하였다. 이



러한 이유에 대해 “대저 의복과 음식은 같으니, 바로 물건으로 자신을 받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편(의복)과 이편(음식)을 모두 합하여 말하여 거듭 4편으로 분절하지 않았다.”<sup>16)</sup> 고 하였다. 이는 분절을 하기 위해 억지로 조목을 분배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편입한 조목의 뜻이 경계가 달라질 경우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신후담의 분장 분절 준거를 내편 명부자지친 장의 이씨 설과 비교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장	이 성	신후담
명부자지친(40)	明事親之禮 (1-4)	言人子事親之常禮 (1-6)
	明凡爲人子之禮 (5-10)	言人子持身之道 (7-10)
	明敬親命之禮 (11-15)	廣論孝敬之道 (11-15)
	明廣愛敬之禮 (16-20)	言推其愛敬父母之心 (16-18)
		推廣愛敬之說也 (19-20)
	明諫過之禮 (21-23)	言諫過之禮 (21-23)
	明侍養疾病之禮 (24-25)	言養疾之事 (24-25)
	明謹身之禮 (26-27)	親沒後事言之 (26-28)
	明祭享之禮 (28-33)	祭享之事 (29-33)
	明孝親之道 (34-36)	統論孝親之道 (34-36)
明不孝警之 (37-39)	言不孝之戒 (37-39)	
10절	11절	

내편 명륜 편 부자지친 장은 전체 39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씨는 이를 10개의 절로 나누었고, 신후담은 11개의 절로 나누면서 개념을 세우고 조목을 분속하여 두었다. 신후담이 세운 분절의 개념을 보면 이씨의 분절개념을 수용한 듯이 보이지만 분절개념이 약간씩 달라졌으며, 분절개념을 새로 세운 곳은 조목의 분속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이씨는 제 1조에서 4조까지를 ‘아버이를 섬기는 예를 밝힘[明事親之禮]’으로 보고, 제 5조에서 10조까지를 ‘자식의 예를 다함을 밝힘[明凡爲

16) 慎後聃, 『小學筭疑』: 大抵衣服飲食同 是外物之奉己者 故前篇及此篇 皆合言之 不復以四篇之分節也.

人子之禮’으로 경계하여 분절개념을 세워두었다. 이씨가 세운 이 두 절의 개념은 각기 분속된 조목의 첫 서두에 놓인 구절에 기인한 것이다. 그 아래 분절개념 또한 조목의 첫 구절과 대비하여 보면 그 명명된 명칭이 해당 조목의 구절에 준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신후담이 세운 분절개념을 보면 이씨가 경계로 삼아 분절한 것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으나, 제 1에서 6조까지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평사시의 예[人子事親之常禮]’로, 제 7조에서 10조까지를 ‘자식이 몸을 지키는 도리[人子持身之道]’로 하여, 제 7조의 ‘무릇 자식 된 자[凡爲人子者]’의 조목으로 앞 뒤 절의 경계를 삼았다. 신후담은 이러한 분절 준거에 대하여 뚜렷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혀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조목의 말미에 해당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적시하여 둔 것을 근거로 하여 부자지친 장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기준을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이씨가 세운 부자지친 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아버이를 섬기는 예를 밝힘[明事親之禮]’의 개념은 ‘자식 된 자의 예[凡爲人子之禮]’를 포함하여 부자지친 장의 마지막 절인 ‘불효를 경계함[不孝警之]’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지친 장 39 조목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몸을 삼가는 예를 밝힘[明謹身之禮]’은 ‘질병에 시양하는 예를 밝힘[明侍養疾病之禮]’과 ‘제향의 예를 밝힘[明祭享之禮]’ 절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분속된 제 26, 27조의 내용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부모를 잊지 못하는 자식의 정’에 대한 조목으로, ‘질병’과 ‘제향’의 두 개념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씨가 정한 ‘謹身之禮’의 개념은 ‘明凡爲人子之禮’와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고, 이로 인해 ‘明事親之禮’ 역시 ‘凡爲人子之禮’와 의미를 명료하게 나눌 수 없는 개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후담이 부자지친 장을 전체적인 의미의 상관관계 속에서 개념을 세우고 조목의 분속을 정하고 안배하였음을 ‘事親之禮’와 ‘凡爲人子之禮’를 ‘人子事親之常禮’와 ‘人子持身之道’로 글자를 보태거나 바

꾸고, ‘謹身之禮’를 ‘親沒後事言之’로 명칭을 바꾼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후담이 ‘事親’의 뒤에 ‘常’을 둔 것은 자연히 뒤에 ‘變’인 ‘養疾之事’와 ‘親沒後事’와 경계된다.

부자지친 장 제 5조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 드리며 어두워지면 자리를 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핀다[冬溫夏清 昏定而晨省]’는 조목이며, 제 6조는 ‘효자로서 깊이 사랑하는 자[孝子之有深愛者]’의 조목이다. 제 5조에서 定省의 대상은 ‘부모’가 분명하니, 다음 절목인 ‘人子持身之道’의 개념에 들 수 없음은 명확하다. 그리고 제 7조에서 제 10조까지는 모두 ‘父母存’, ‘父母在’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식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人子持身’ 개념 안에 들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제 6조는 ‘효자로서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니, 뒤 절의 ‘人子持身事’ 속에 두어도 될 듯 한데, 신후담은 이를 ‘人子事親’에 소속시켰다. 그것에 대해 그는 6조의 말미에 “첫머리 장에서부터 이하 다섯 장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常禮를 갖추어 말한 것인데, 이 장에 이르면 애경의 도리로 논하여 부모를 섬기는 근본을 밝혔다. 독자는 깊이 생각함이 마땅하다.”<sup>17)</sup>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제 6조의 ‘愛敬’이 제 1조에서 제 5조까지 부모를 섬기는 근본을 통론하는 의미 단위로 여겨 분배한 듯하다.

또 이씨는 ‘謹身之禮’로 개념을 세워 제 26, 7조를 두고, 제 28조에서부터 제 33조는 ‘祭享之禮’로 개념을 세워 두었는데, 신후담은 제 28조를 포함하여 ‘親沒後事言之’ 절로 경계를 세우고, 제 29조에서부터 33조를 ‘祭享之事’에 분속하여 두었다. 제 28조 ‘제의에 말하기를 서리와 이슬이 내리면[祭義曰霜露既降]’은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며, 제 29조 ‘제통에 말하기를 무릇 제사는[祭統曰夫祭也者]’은 제향의 절차와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제 28조는 제의(祭義)라는 편명 아래 있

17) 慎後聃, 『小學筭疑』: 按自首章以下五章 備言人子事親之常禮 而至此章 則特論愛敬之道 以明事親之本 讀者所當深念也.

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른 부모를 사모하는 정을 나타내는 것임으로 실제 제향의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씨가 제 28조를 제향에 넣은 것은 이 조목의 편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희문이 이 조목에 대하여 “제의(祭義) 편은 효자가 신을 대함에 용모를 공손하고 신중히 하는 것을 극진하게 하여 정녕 살아계실 때 섬기는 예와 같이 함을 말한 것이니, 여기에서는 그 글을 그대로 취하여서 살아서 섬기는 예로 밝혀 둔 것인데 제의 편에 있는 것에 비하여 더욱 간절하다.”<sup>18)</sup>고 하여 이 조목을 ‘明親沒而不忘’ 아래 분속시켜 ‘明祭祀之禮’와 분절의 경계로 삼았으니, 신후담이 경계한 뜻 역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신후담은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경계가 뚜렷한 조목을 기점으로 개념을 정하고, 다른 절과의 경계 속에서 그 절의 마지막 조목이 다른 절의 첫 조목과 어떠한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주목하여 분속하였다. 이것은 분절이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편입된 조목의 뜻이 경계가 달라진다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씨의 설대로 따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씨의 분절개념이 주는 혼란을 경계하기 위해 글자를 보태거나 분절개념을 새로이 하여 각 조목의 요점을 잃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성호의 경서해석의 특징이 구조분석을 통해 논리적 연관성을 검토하여 요지를 파악하는 방법<sup>19)</sup>이라는 점을 견지해볼 때, 성호의 학문 방법론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이씨의 분장에 대한 이견 가운데 하나가 선행편 제 42조 ‘포효숙공(包孝肅公)’ 조목으로, 이씨는 이 조목을 봉우지교 장에 넣었다. 그러나 《주자어류》에는 《소학》 선행 편에 봉우지교 장이 없다는 말이 언급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 사정이 《도암집》에 수록되

18) 柳徽文, 『小學童子問』: 祭義 極言孝子對神 容貌之敬慎 正如事生之禮 而此則直取其文以明事生之禮 比在祭義尤切.

19) 최석기, 『성호 이익의 『대학』 해석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제4집, 한국실학학회, 2002, 182-191쪽.

어 있다.

물었다. “《주자어류》에 진순이 ‘《소학》의 실명륜(實明倫) 편에 어찌하여 봉우 장이 한 조목도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주자가 ‘당시 여러 편을 분류하여 찾으면서 이것이 우연히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 이씨가 ‘包孝肅公 尹京時’ 한 장을 봉우에 두니 이 장이 과연 봉우의 윤리를 실증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봉우 한 장이 없다고 말한 것은 어찌서입니까?” 답하였다. “포공 윤경’ 장이 봉우의 조목에 진실로 긴절한 것은 아니지만, 봉우 조에 두지 않으면 소속될 곳이 없다. 《주자어류》의 설이 과연 그러했는지 의심스럽다. 어찌 혹 뒷날에 이 장을 첨가하여 넣었겠는가?”<sup>20)</sup>

《주자어류》의 이 말 때문에 선행 편 제42조는 논란이 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이재의 견해처럼 이 조목을 봉우지교 장에 두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인식 속에는 《소학》은 주자가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확립한 뒤 ‘하학상달(下學上達)’의 학문으로 권장한 이래 그의 문도들에게 주자학의 입문을 위한 중요한 저술로 전수되었지만,<sup>21)</sup> 《주자어류》는 후대에 주자의 어록 모음집으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저술의 의의와 성격이 전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후담은 이 조목을 봉우지교 장에 소속시키지 않고 장유지서 장에 소속시켜 선행 편에 봉우지교 장을 두지 않았다. 신후담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장을 살펴보니 글의 뜻이 내편 계고 편 우예 한 장에서 인용한 것과 같으니, 내편의 예(禮)로 미루어 본다면 장유지서에 소속됨이 합당하

20) 李緯, 『陶菴先生集』 권13, 『答宋生問目』: 語類淳問小學實明倫篇 何以無朋友一條 曰當是時聚編類來 偶無此爾 而李氏以包孝肅公尹京時一章當之 此章果是實朋友之倫耶 然則何以云無朋友一條也: 包公尹京章 於朋友條固不切緊 而舍朋友則無可屬處矣 語類說果可疑 豈或後來添入此章耶.

21) 박순남, 박사학위논문, 1쪽.

다.<sup>22)</sup>

계고 편 제 33조 ‘우나라와 예나라의 군주가 서로 토지를 다투다[虞芮之君 相與爭田]’는 조목은 우(虞)와 예(芮)의 군주가 서로 밭의 경계를 다투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나라가 들어갔다가 서로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서 두 군주가 감동하여 서로 사양하여 결국에 한전(閒田)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씨는 이를 장유지서 장에 분속시켜두었고, 이재 역시 이 단락 안에 허다하게 ‘사양(讓)’ 글자가 있음을 들어 이씨 설에 동조하였다.<sup>23)</sup> 그러나 박세채는 이 조목에 대하여 “사대부가 서로 사양함이니 또한 봉우의 의리에 가깝다.”<sup>24)</sup>고 하여 이를 봉우의 의리로 해석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 조목은 종종 분장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사례로 등장하지만 대체로 장유지서 장으로 분류되었다. 신후담 역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니 이 세 장은 明長幼之序이다. 大舜의 일을 인용한 것은 그 형이 아우를 사랑하는 도리를 밝힌 것이요, 백이와 숙제의 일을 인용한 것은 그 아우가 형을 섬기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우예 한 장은 가리키는 뜻으로는 소속될 곳이 드러나지 않으니 빠진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혹자가 말하기를 ‘隣國 또한 형제의 의리가 있다. 우와 예는 이웃나라이다. 聖化를 보고 느껴 서로 사양함을 알았는데, 하물며 형제간에 친함이라. 쟁탈로 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하였다.<sup>25)</sup>

22) 愼後聃, 『小學筭疑』: 按此章文義 如內篇稽古所引虞芮一章 以內篇之禮推之 當屬長幼之序

23) 李緯, 『陶菴小學講義』: 此段中班白不提挈一句 固已綴合於長幼條 而此特其一端耳 以大體言之 則幼事長之禮 莫大於讓而出入門戶 卽席必後長者 此小學之教 已自八歲而後教讓者也 推而至於處鄉黨在朝廷 莫不有是讓焉 此段中許多讓字 皆從悌長 而推廣者也 其意尤深切矣.

24) 朴世采, 『南溪集』 권51, 『答高益之問』: 虞芮之相與爭田及曾子曰以能問於不能兩章 似不合於明倫條 可疑: 士大夫相讓 亦近於朋友之義

25) 愼後聃, 『小學筭疑』: 按此三章明長幼之序 引大舜之事者 明其兄愛弟之道也 引夷齊之事者 明其弟事兄之道也 虞芮一章不見指意之所屬當闕所疑 或曰隣國亦有兄

신후담은 계고 편 장유지서 장에 분속된 3개의 조목을 형제의 우애로 의미관계를 두고 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 33조의 조목에는 이러한 의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혹자의 말을 빌려 이웃인 두 나라 군주가 사양한 일에 이 조목의 의리를 삼아 장유지서에 소속시켰다. 이에 따라 신후담은 선행 편 제 42조 역시 ‘두 사람이 서로 백금을 사양한 내용’임으로 곧 ‘두 군주가 서로 받을 양보한 일’에 전주어 보면 이 두 조목의 의리가 ‘사양’에 그 접합점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조목의 의리에 따라 장유의 장에 소속됨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신후담 이후 《소학》 내, 외편에 대한 완결된 형태의 분장 분절 체계를 정립하였다고 평가 받았던 유희문은 이 조목에 대해 추후에 보충해 넣은 것을 의심하기는 하였지만<sup>26)</sup>, 그대로 봉우지교 장에 두어 명륜 편 5장의 체계를 유지하였고, 유중교 또한 소학설을 저술하면서 이재와 마찬가지로 《주자어류》의 신빙성에 문제를 두고, 봉우지교 장이 분명함을 밝혀두었다.<sup>27)</sup> 이는 주자가 《소학》의 편차를 정한 이래 편장이 바뀌거나 그 아래 분속된 조목을 달리하여 《소학》의 편차를 새롭게 구성한 예는 없었다. 단지 그 편차를 그대로 준수하면서 분절만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신후담 역시 주자가 정한 《소학》의 편차를 그대로 준수하여 분절만 달리하는 해석 방식을 취하면서 다만 선행 편의 봉우지교 장만은 예외로 하였다. 이를 두고 주자 《소학》의 편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주자가 《소학》을 저술한 이래 6편 19장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킨 조선 후기 소학 분절설의 전개과정에 대비

弟之義 虞芮隣國也 觀感於聖化備知相讓 則況乎親兄弟 尤不可以爭奪也

26) 柳徽文, 『小學童子問』: 白金寄人 正是朋友之事 終予其子 又是信義之大 而問答皆言其無 則此一章 或是追後補入者歟

27) 柳重教, 『省齋集』 권23, 『講說雜稿-小學說』: 包孝肅公尹京時兩人讓白金事 此繫朋友之交明矣 語類有問 小學實明倫 何以無朋友一條 朱子答之只云 當時衆編類來 偶無此耳 此殊可疑 豈於被問後追補此章耶

하여 본다면, 주자 《소학》의 편차 조정의 난제에 얽매이지 않고 의리에 따라 경전을 해석하려는 그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소학차의>의 주석은 거의 대부분을 《소학질서》에서 차용하였다. 성호는 《소학질서》에서 선행 편 봉우 장의 문제에 대해 주자어류 속의 문답을 언급하면서 “포효숙 윤경 한 장은 곧 봉우의 일인데 이 문답은 어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초고에서 빠진 것을 혹 주자의 뜻은 보충하여 넣고자 하였으나 이르지 못한 듯하다.”<sup>28)</sup>고 하여 이를 봉우의 일로 보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신후담이 성호의 설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학문을 분장, 분절하여 이해하려는 논의가 학문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목의 의리를 《소학》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의 상관성 속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성호는 신후담의 학문 성향에 대해 ‘자득(自得)을 더욱 숭상하며 구설에 구애 되지 않았다. 반드시 성의(誠意)로 본지를 유통하는 것을 준칙으로 삼았다.’라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설에 얽매이지 않고 의리를 발명하여 본문을 해석하려는 그의 경학관의 한 면모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이로써 신후담의 <소학차의>는 중국학자 이성 이후 조선 학자에 의해 주자가 《대학》과 《중용》의 내용을 장구로 이해하여 파악하였던 방법론을 《소학》에 적용하여 《소학》 전편에 걸쳐 분절체계를 세움으로써 《소학》 분절에 대한 독자적인 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후담의 분장 분절체계는 중국 학자 이성의 분절 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많고, 분절개념 또한 각 조목의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어서 간결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외편에서 세운 분절개념이 일치되지 못하게 된 점이 있고, 의미가 명료하지 못한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소학차의> 저술 이후 신후담이 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논의를 산

28) 李瀼, 『小學疾書』: 包孝肅尹京一章 卽朋友事 此問答未知何故然 恐欠草草 或朱子意欲添補而未及也.

29) 최석기, 앞의 논문, 2013, 282쪽.



출한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 그의 《소학》 분절설이 논의되거나 언급된 사례도 거의 없다. 그리고 신후담이 이씨의 분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학》 구성 체계에 대한 여러 이견을 보였지만 편장을 바꾸거나 조목을 재배열하지는 않았다. 이는 유희문과 유중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경학 분석 방법론을 《소학》에 적용한 것은 《소학》의 연구가 경학 연구와 그 수준을 같이 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소학》이 《대학》이나 《중용》과는 달리 논의를 가지고 학파간에 대립적인 의미를 형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정에는 《소학》의 분절이 주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적었던 것도 있을 것이며, 편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정될 경우 《소학》의 권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주자의 권위에 대한 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조가 확대 재생산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신후담은 <소학차의>를 완성하고 4년 뒤인 1729년에 부녀자들의 소학서인 <내교(內敎)>를 저술하였다. <내교>는 부녀자의 덕목을 덕성, 용모, 말씨, 직무 네 가지로 강령을 세우고, 그 아래 조목을 두어 이를 언어와 행실로 넓히고 실증한 《소학》의 편차를 모방하여 구성하여 둔 책이다. 《소학》에서 부녀자의 처신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소략한 편이기 때문에 그가 이 책을 저술한 것에는 《소학》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소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강령과 조목을 마련하여 그 학문적 체계를 세우려는 학문 방법론은 새로운 소학서류의 저술로 발전된 것이다. 신후담과 동문인 안정복의 《하학지남(1740)》의 편찬 체계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하학지남은 3권 70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아래 분절개념을 두고 일정한 조목을 분속시켜 두었다. 예컨대 상권 독서지장은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讀書之法 장 아래 通言讀法, 讀書貴靜養, 讀書貴治精, 讀書要求實用, 讀書貴勤苦, 讀書必敬聖訓 6개의 절을 두고 그 아래 《소학》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한 장을 구성하여 두었다. 이렇듯 성호 문하에서

《소학》에서 빠진 거가일용(居家日用)의 일을 보완하여 일정한 의미단위로 분절체계를 세워 학문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소학서류를 편찬한 것은 이들 학파의 《소학》에 대한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4. 주석 내용의 특징과 그 의미

신후담의 <소학차의>는 차기류에 속하지만 《소학》 전체 386조목에 대하여 주석을 덧붙여 놓았는데, 특히 본문 전체에 걸쳐 성호의 《소학질서》를 주석으로 전면 차용해 두었다. 신후담이 성호를 배알한 그 해(1724)에 <소학차의>를 쓰기 시작하여 다음 해(1725)에 완성된 과정에서 성호집에 신후담이 《소학》에 대해 질문한 글이 있고, 또 그 다음해(1726)에 《소학》 22조목에 대하여 본문 내용의 고증과 해석에 대한 신후담의 질문에 성호가 답한 글이 《성호집》에 수록되어 있다.<sup>30)</sup> 이는 적은 문목이지만 《소학》 이외에, 사서(四書)를 비롯하여 역학 등 성호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 《하빈집》과 《성호집》에 두루 수록되어 있다.

《소학》에 관한 문답 중에 특별히 두 서신 속에 모두 언급되고 있는 것이 내편 입교 제 1조의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잘 때 옆으로 자지 않는다[婦人妊子 寢不側]’는 구절이다.

① 《소학》에 ‘잘 때 옆으로 자지 않는다.’는 구절에 대해 근래에 이고성 선생께 질문하였는데, ‘이는 임신한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니, 보통 사람이 잘 때 시체처럼 누워 자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규방에 임신한 여자에게 물어보니 똑바로 눕기가 매우 어렵다고

30) 李瀼, 『星湖集』 권22, 「書-答慎耳老小學問目」 참조.

하였다. 이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sup>31)</sup>

② 똑바로 눕는 것이 태교의 바른 법도라면 평상시에 행하더라도 또 무슨 불편이 있겠는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태교라고 하더라도 또한 삼감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둘 다 두어도 된다는 뜻 또한 좋다.<sup>32)</sup>

③ ‘침불측’은 침상 가에서 자지 말라는 말이다. <급암전>에 ‘왕이 모퉁이에 걸터앉아 내려다보신다.’라 한 것에 대해 여순이 말하기를 “廁음은 ‘側’인데 침상 가를 말함이니 침상에 걸터앉아 봄이다’고 하였다.(중략)오씨의 설은 옳지 않다. 혹자는 이것이 임신한 사람이 옆으로 눕는 것이라 하는데, 임신한 자는 합당하지 않아서 옆으로 눕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소의 예는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평소에 이미 곁으로 눕는 것을 정례로 한다면 이것을 태교로 하는 것이 유독 안 될 것인가? 하물며 임신한 자는 바로 누울 수가 없으니 그 형세가 옆으로 누워야만 되는 것이다.<sup>33)</sup>

④ <질서>에 말하기를 “‘침불측’은 침상 가에 자지 말라는 말이다.’고 하였다.”<sup>34)</sup>

이 논의는 모두 ‘침불측’에 관한 것으로, ①과 ②는 신후담의 질의에 대한 성호의 답변이다. ③은 <소학질서>의 주석이며, ④는 <소학차의>의 주석이다. <성호집>에는 신후담이 <소학>의 본문 해석과 관

31) 李瀼, 『星湖集』 권22, 『書-答慎耳老』: 小學寢不側之說 近質於李高城先生 以爲此特妊娠者之例 與常人臥無屍不同 然訪之閨房有身者 殆難仰臥 於公意以爲如何.

32) 李瀼, 『星湖集』 권22, 『書-答慎耳老小學問目』: 仰臥若爲胎教之正法 則行於平居又何妨 平居既不合如此 則雖胎教亦當在所慎矣. 然兩存之意亦好.

33) 李瀼, 『小學疾書』: 寢不側謂不寢於床側 汲黯傳 上踞廁而視之 如淳曰廁音側 謂床邊 踞床視之也(중략) 吳說非是 或謂此妊娠之側 若妊娠者 不合側臥 則居常之禮何獨不然 居常既以側臥爲正禮 則獨不可以此爲胎教耶 況妊娠者不堪仰臥則其勢側而已矣.

34) 慎後聃, 『小學筭疑』: 疾書曰寢不側謂不寢於床側.

련하여 물은 22조목에 대한 답변이 있지만, 《하빈집》에는 없다. 그러므로 성호의 답변을 미루어 신후담의 질의 내용을 짐작해보면, 율곡이 저술한 《소학제가집주》에는 이 조목 아래 중국 주석가 오늘의 주석을 덧붙여 놓았다. 오늘은 ‘침불측’의 의미를 ‘측(側)은 그 몸을 옆으로 함이 대(側 側其身也).’고 하여 ‘불측’을 ‘옆으로 누워서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오늘의 해석은 《논어》 <향당편>의 ‘침불시(寢不尸)’에 대하여 주자가 ‘시(尸)’의 의미를 ‘드러누워서 잘 때 죽은 사람처럼 한다[偃臥似死人也]’는 주석을 원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은 평상시의 처신과 임신부의 처신은 다르다고 오해하였는데, 그런데 박세채 역시 “논어 ‘침불시(寢不尸)’의 주에 ‘시(尸)는 드러누워서 잘 때 죽은 사람처럼 한다.’고 하였고, 의서(醫書)에도 역시 ‘사람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정도이다.’고 하였는데, 《열녀전》에서만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안된다.’고 하니 대개 잉태했을 때의 법은 그러한 것이다.”<sup>35)</sup>고 하여 평상시의 처신과 임신했을 때의 처신을 구별하여 다르게 보았으니, 오씨의 설에 동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임신한 여자는 옆으로 누워서 안된다고 한다면 바로 누워야 하는데 이는 임신부의 외형적 특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 없다.

성호가 이고성(이식:李栻, 1659~1729)에게 물었던 것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성호가 신후담에게 다시 질의한 것은 오늘의 주석이 합당한 가에 대한 문제였다. 성호는 이 구절이 임신부로서의 처신에 대한 것임으로 평상시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면 그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근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에 <급암전>의 문헌을 근거로 성호는 임신부는 ‘침상 가에 누워서 안되는 것’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추정하였다. 신후담의 답글에 ‘둘 다 두어도 된다.’는 뜻에는 이렇듯 잘 때 옆으로 잔다는 평상시의

35) 朴世采, 『南溪集』 권54, 『雜著:隨筆錄』: 論語曰寢不尸 註謂偃臥似死人也 醫書亦曰人當側臥爲度 而列女傳獨稱寢不側 蓋懷孕之法然也.

처신과 임신의 처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눕는다.’는 것을 정례로 하여 임신부의 경우에는 달리 침상 가에 눕지 않는 것으로 나란히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성호의 해석은 ‘옆으로 눕되 침상 가에 누워서 안된다.’는 의미로 임신부로서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신후담이 《소학질서》의 성호설을 그대로 차용하여 둔 것은 이러한 성호의 견해에 찬동한 것이다. 성호는 이 구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비교적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자인 안정복과의 <소학문목>에도 신후담에게 보낸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신을 하였다.<sup>36)</sup>

성호는 특히나 《소학》에 수록된 인물과 사건이 《소학》 본지와 적합한 지에 대한 의리를 중요하게 내세웠고, 이것이 다른 학파와는 다른 성호학파의 《소학》 이해에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후담이 《소학질서》의 어떠한 내용을 수용하였는지의 문제는 이들 학파의 《소학》 논조에 대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소학》이 학술적으로 논의되면서 《소학》에 수록된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서 일찍이 논의가 있었다. 김장생의 <소학경서변의(小學經書辨疑)>에 “《소학》에는 절의를 지키지 못한 왕상(王祥)이나 범질(范質), 불충한 이적(李勣)까지도 그들의 행적을 뽑아 수록하였다. 이는 사람이 옳지 못하다 하여 그의 훌륭한 언행까지 폐기하지는 않은 것이다.”<sup>37)</sup>라고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여 두었다. 김장생의 논변은 《소학》 본문에 수록된 인물은 선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행에 중점을 두고 취사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한 변론이나, 《소학》에 수록된 인물이 모두 모범적이지는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성호 역시 이를 수용하면서도 그 문제

36) 李瀼, 『星湖集』, 권24, 『書-答安百順小學問目』: 按寢不側不伏又不仰則將奈何 徐偃宋偃之生 不覆不仰 則所謂偃者何狀 意者難產橫偃而不出耶 竊謂不側者 不寢於牀側 恐危墜也 如漢帝踞側之側 凡夜寢或側或仰 何可禁止.

37) 金長生, 『沙溪全書』 권11, 『經書辨疑-小學』, 小學中 如失節之王祥范質 不忠之李勣 亦取而錄之 是不以人廢其言之善也.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계고 편 이하로는 그 사람이 반드시 모두 현인이나 성인은 아니며, 그 일이 반드시 모두 지당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치에 맞는 한 가지만 취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왕왕 미진한 것이 그 사이에 섞여있다. 『孟子』 같은 책에도 유공지사(庾公之斯)와 같이 군주를 섬기는데 진실로 선하지 못한 자가 들어있다.<sup>38)</sup> 하물며 여러 저술가들의 말에서 뒤섞어 채록한 것을 어찌 꼭진하게 도리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학자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한결 같이 지극한 교훈으로 여긴다면 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조목의 아래에 곧장 드러내었다.<sup>39)</sup>

이 논조에 따라 성호는 《소학질서》에 범질(范質), 왕상(王祥), 등유(鄧攸) 등의 인물에 대하여 행적과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는 점과 그들의 명절(名節), 의리에 대하여 평론하여 두었다. 이러한 《소학질서》의 내용을 신후담은 <소학차의>에 주석하여 두었다.

① 《질서》에 말하기를 “두계량은 험객이다. 마원이 그들이 험객과 교제하는 것을 경계시키면서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에 실로 민망하게 두계량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같이 되었다. 그 충후한 말을 찬찬히 음미하면 높이고 억제하는 뜻이니 몹시 칭찬할 만하다.”<sup>40)</sup>

38) 정(鄭)나라 사람이 자탁유자(子濯孺子)를 시켜 위(衛)나라를 침범했을 때, 위나라에서는 유공지사를 시켜 자탁유자를 잡아오게 하였는데, 유공지사에게 활쏘기를 가르쳐 준 이가 자탁유자였다. 그러므로 유공지사(庾公之斯)가 선생을 해칠 수가 없어 살축은 빼고 화살만 쏘고 돌아갔는데 이를 두고 맹자집주에 주자가 “유공지사가 비록 사사로운 은혜는 온전히 했다 할지라도 공변된 의리를 폐한 것이니 논할 가치도 없다. 『孟子』 『離婁 下』: 庾斯雖全私恩, 亦廢公義, 其事皆無足論者”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39) 李瀼, 『小學疾書』: 自稽古以下 其人未必皆賢聖 其事未必皆至當 而特取其一端之合理 故往往有所未盡者攙在其間 雖如孟子所謂庾公之斯之於事君 苟有未盡善者 況此雜採百家語者 豈可作委曲盡道看耶 學者不知此意一視爲至訓 則有害 故輒著於各條之下.

② 《질서》에 또 말하기를 “魯公[범질]의 시는 대략 좋다. 그러나 위 축되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몸을 보존하는데 오로지 마음을 썼을 뿐이다. 그 중 ‘시비가 누가 된다[是非毀譽間 適足爲身累:시비하며 비방과 칭찬하는 사이에 다만 몸에 누만 만들게 된다.]’는 등의 구절은 숭상할 것이 못된다. 이 노공은 五代 漢나라에 벼슬하여 郭柴[세종, 시종훈] 두 군주를 섬겼다가 마지막에는 송나라 신하가 되어서 머무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조정의 사적에서 크게 비방 받은 것은 곧 이와 같은 것이 있어서이다.<sup>41)</sup>

①은 가언 편 제 6조에 마원이 그의 조카인 엄과 돈에게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버릇을 훈계한 것에 주석한 내용이며, ②는 가언 편 제 10조에 범질이 조카인 고가 승진시켜 줄 것을 청하자 시를 지어 경계한 내용에 대한 주석이다. 성호는 마원의 말은 그 의도는 좋지만 자신 또한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범질이 언행을 경계한 시는 처신을 바꾸어 벼슬을 한 범질이 해야 할 말은 아닌 것으로 평론하였다. 아울러 성호는 마원의 이 발언 뒤에 두계량과 친분이 있었던 양송이 그를 무고하여 감옥에서 죽게 된 사실<sup>42)</sup>과 범질의 행위가 풍도(자신의 지위만 보전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일컬어짐)와 같은 부류에 해당한다<sup>43)</sup>는 점을 들어 그들의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였다. 신후담의 <소학차의>에는 이 부분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례로 거론된 인물의 후속담과 비유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니, 《소학》에 수록된 인물이 모두 합당한 모범적인 인물

40) 愼後聃, 『小學筭疑』: 疾書曰 杜季良 俠客也 援既戒其通俠 而不欲言人過 故其言如此 其實悶具從季良而發也 詳味之其忠厚之辭 抑揚之意 有足以欽歎者矣.

41) 愼後聃, 『小學筭疑』: 又曰魯公詩大槩是好 然只是斂縮畏愼 專意保全 至是非爲累等句 不足尙也 此公始仕漢 歷事郭柴二主 卒爲宋臣 而未嘗留難 其立朝事蹟 大可譏議 則所存如此也.

42) 李瀼, 『小學疾書』: 其後季良以爲行浮薄亂羣惑衆得罪 其交遊梁松寶固等 亦被告 僅免 松竟坐誹謗下獄死 援之戒諭其亦有先覺者歟.

43) 李瀼, 『小學疾書』: 蓋馮道之倫 故稱道云厚德 稽古宏才偉量 雖朝代遷 賢人無間言 屹若巨山也 其說之鄙陋 若是與長樂老敍相表裏 所謂同氣相求者也.

이 아니라는 성호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되 거론된 인물에 대한 중요한 평론만을 수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진전하여 신후담 스스로 주석을 보태거나 다른 견해를 개진하지는 않았다. 선행 편 실명륜 이하의 《소학질서》의 주석이 없고, 그렇다고 달리 다른 주석가의 견해를 채록하여 둔 것도 아니다. 다만 분절 논의를 통해 그 해당 조목의 의미를 적시하였다. 이에 신후담의 《소학》 본문 해석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선행 편 실명륜 실경신 편을 제외하고는 성호의 소학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성호 소학설의 관점으로 신후담의 《소학》에 수록된 인물관에 대한 의미는 추정해 볼 수 있다.

《소학》의 가언 편과 선행 편은 훌륭한 말과 착한 행실을 실증한 것이다. 그런데 가언 편에 수록된 마원의 말과 범질의 시는 언행을 경계시키는 훌륭한 말과 시임에는 분명하지만 도리어 이 때문에 그들의 행적이 문제가 되었다. 성호의 《소학》 인물 평론은 곧 주자가 《소학》에 취사한 인물에 대한 평론이라는 점에서 주자 《소학》의 구성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해석 방식은 주자의 《소학》을 절대시하였던 학파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호의 학문을 계승한 성호학파에서 《소학》의 체제를 응용한 안정복의 《하학지남》을 비롯하여 황덕길의 《동현학칙》 등이 간행되었는데, 《소학》에 제시된 인물을 조선의 인물로 대체한 일면에는 《소학》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검증의 발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후담이 성호의 《소학》 인물에 대한 평론을 주석하여 두었다는 점은 《소학》의 내용 취사에 문제가 있다는 논의를 제기한 성호의 관점에 동의한 것으로 이들 학파의 《소학》에 대한 관점이 일련의 경향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성호의 문도 가운데 《소학질서》를 주석으로 차용하거나 성호의 《소학》 해석에 대한 변을 논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렇기 때문에 《소학》 본문 전체를 성호의 《소학질서》에 입각하여 해석한 것은 성호학과 내에서도 독특한 사례이며, 다른 학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신후담의 이러한 주석방식은 일방적인 사승설의 존중이라는 의미보다는 성호의 《소학》 해석이 《소학》 본문의 본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소학》 주석과 《소학》 본문의 인물과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산출된 성호의 소학설을 지지하면서 그의 학문 방법론을 계승하려고 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하빈 신후담의 <소학차의>를 중요한 텍스트로 삼아 18세기 소학학의 중요한 성과를 반영한 그의 《소학》 분절에 대한 연구 성과와 주석적 특징을 개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신후담의 《소학》 분절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조선후기 소학학에서 가지는 일정한 의미와 조선후기 《소학》 연구가 조선의 독자적인 《소학》 연구로 진전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신후담의 <소학차의>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후담은 분장·분절이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 여겨 《소학》의 각 조목이 일정한 의미 연관을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의미 단위로 분절하였다. 둘째, 신후담은 중국학자 이성 이 세운 분절 개념이 내, 외편을 관통할 수 있는 의미적 접합점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하여 이씨의 설을 대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분절의 준거를 삼아 분절 명칭을 새롭게 정하고, 그에 따라 분속된 조목도 달리 정하였다. 셋째, 신후담은 《소학》 전편에 대하여 논지 접속에 따라 분절의 명칭을 새롭게 정하고, 그에 따른 조목의 분속도 달리하여

《소학》 본문 386조목에 대하여 내편 입교 편을 3절, 명륜 편을 5장 30절, 경신 편을 4장 22절로 나누었고, 계고 편은 모두 10장 21절, 외편 가언 편은 10장 39절, 선행 편은 8장 54절로 나누어 내, 외편 386조목을 37장 169절로 분절체계를 세웠다. 이는 주자가 분절로 경전을 해석하였던 학문 방식으로, 조선후기 소학사에 《소학》에 경학 연구의 학문 방법을 적용한 독자적인 논의이다. 넷째, 선행 편 제 42조는 봉우 장에 소속되었으나, 신후담은 계고 제 33조와 조목의 의리가 같다고 보고 장유 장에 소속시키면서 선행 편에 별도로 봉우지교 장을 세우지 않았다. 당시 《소학》의 분장은 주자가 체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는 진전된 논의로 정해진 《소학》의 편제에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소학》 본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논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성호의 《소학질서》를 《소학》 본문 전면에 주석함으로써 《소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었던 성호의 소학설을 적극 수용 지지하면서 성호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신후담의 《소학》 연구는 조선후기 소학학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소학》을 분장·분절로 이해한 논의에는 19세기 학자 유휘문의 《소학장구》(1830)와 유중교의 <소학설>(1881)이 있었으나, <소학차의>는 이들 보다 앞서 이루어진 성과물로 18세기 초 《소학》의 분절에 대한 이해를 살필 수 있는 참신한 저술이다. 둘째, 중국학자 이성이 《소학》의 분절체계를 세웠으나, 실제로 분속된 것은 내편에 한정된 반면, 외편까지 확장하여 각 조목에 대한 의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학자에 의한 새로운 분절 이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셋째, 선행 편에 봉우지장을 두지 않은 분장체계는 신후담 이후의 조선학자의 분장 분절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도로, 신후담은 주자의 《소학》 편장 체례를 준수하면서도 편차 조절의 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문의 의리에 따라 경전을 해석하려는 학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넷째, <소학차의>의 분절체계는 안정복의 《하학지남》의 편제와

관련하여 이들 학과의 《소학》 학문 방법론에 대한 일정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신후담의 <소학차의>는 18세기 초 중국학자 이성의 분절체계에 대한 조선 학자의 전면적인 검토 아래 《소학》의 분절체계가 새롭게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 소학학의 진전된 시도로 평가 할 수 있다.

주자가 경전을 장절 단위로 나누어 해석한 학문 방법론은 해당 학문 전반의 내용 구조를 일목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학문 방법론이다. 신후담의 저술 가운데 <내교(內敎)>는 부녀자로서 익혀야 할 덕목을 밝혀 둔 소학서이다. 신후담은 부녀자의 덕목을 덕성, 용모, 말씨, 직무 네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아래 해당 조목을 두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가언과 선행으로 편차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안정복은 《하학지남》을 저술하면서 《소학》의 체계를 응용하여 일정한 분절개념을 세우고 《소학》에서 빠진 거가일용(居家日用)의 내용들을 조목화하여 한국 소학서로서의 체계를 마련하여 두었다. 성호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들을 현실에 유용하게 쓰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소학》은 그에 부합하는 학문이다. 성호학과에서 다양한 소학서가 저술되고 특히나 장절 단위로 체계를 세워 이해하려는 방식은 성호학과의 《소학》에 대한 일정한 견해와 학풍 속에서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일의 과제로 삼는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주희, 『소학』  
신후담, 『하빈선생전집』, 아세아문화사, 2006.  
이이, 『소학제가집주』  
이 익, 『성호선생문집』  
\_\_\_\_\_, 『소학질서』  
이 재, 『도암선생집』  
\_\_\_\_\_, 『도암소학강의』  
안정복, 『하학지남』  
유중교, 『성재집』  
유휘문, 『소학장구』  
\_\_\_\_\_, 『소학동자문』  
성백효 역주, 『소학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0.  
하사신, 『소학집성』

### 2. 주요 문헌 및 저서

- 권상하, 『한수재선생문집』  
김장생, 『사계전서』  
김창협, 『농암집』  
박세채, 『남계집』  
안정복, 『순암집』  
임영, 『창계집』  
최석기·정소이 옮김, 『하빈 신후담의 대학후설과 사칠동이변』,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14.

### 3. 논문류

-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 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16, 한국사상사학회, 2001, 57-90쪽.
- \_\_\_\_\_, 「하빈 신후담의 학문과 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하빈 신후담의 경학사상 서설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37,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4, 33-60쪽.
- 박순남, 「호고와 유희문의 『소학장구』에 대하여- 소학 편장의 분장 분절체계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4, 동양한문학회, 2012, 161-201쪽.
- \_\_\_\_\_, 「조선후기 소학학의 형성과 전개」, 경성대학교 한국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소학장구』의 주석 방식에 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40, 동양한문학회, 2015, 1-44쪽.
-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周易)』 해석의 특징 - 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 『한국 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7-67쪽.
- 임부연, 「신후담(愼後聃) 『대학후설(大學後說)』의 새로운 성찰 - 이패립(李沛霖)의 『사서주자 이동조변(四書朱子異同條辨)』과 비교하여」, 『종교와 문화』 31, 2016, 123-162쪽.
- 최석기, 「성호이익의 궁경자세」, 『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5, 199-224쪽.
- \_\_\_\_\_, 「17~8세기의 학술동향과 성호 이익의 경학」, 『남명학연구』 16, 경상대학교 남명학 연구원, 2003, 103-161쪽.
- \_\_\_\_\_, 「하빈 신후담의 『대학』 해석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36, 동양한문학회, 2013, 269-306쪽.
- 최동희, 「신후담·안정복의 서학비판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문, 1975.

최영진·이선경,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37,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4, 125-148쪽.

홍이섭, 「실학의 리념적 일모: 하빈 신후담의 「서학변」 소개」, 『인문과학』  
1,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57, 35-59쪽.

<Abstract>

A study on *Sohakchoui* by Shin Hoo dam's -  
Focused on division of paragraphs\*

Bak, Soon-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hin Hoo Dam's analysis of *Sohakchoui* and to identify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his interpretation of the book. To start, the first characteristic of Shin Hoo Dam's interpretation includes his way of dividing the paragraphs of the *Sohak* text and eliciting meanings of each paragraph. Previously, Lee Seong (among th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he is commonly referred to as Lee), a Chinese scholar in a Yuan Dynasty, paid attention to this method of study. Lee categorized *Sohak* into 386 categories of each topic covered, which comprised of the total of 19 chapters and 79 paragraphs.

This analysis brought controversial opinions among th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central question mainly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ategories fit with the titles given by Lee and whether his division w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logical coherence across the text.

On the other hand, Shin Hoo Dam's was divided into 386 categories of each topic, with the total numbers of 37 chapter and 169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1010467)

\*\* Lecturer of Kyung Sung University.

paragraphs. The notion of division was reconceptualized and the number of categories was differently divided.

In particular, Shin separated the main content and the sequel and divided the main content into 19 chapters and 76 paragraphs and the sequel into 18 chapters and 93 paragraphs. Then, Shin developed the updated constant analytic system. Shin's system tries to address the weakness of Lee Seong, as Lee's system does not clearly unpack the semantic relationship among each category. Therefore, Shin Hoo Dam revised the theory of Lee and newly established the segmentation system. His efforts can be highly appreciated, in that it is a result that was far ahead of *Sohakjanggu* of Ryu Hwi Mon. It can be argued that Shin completed a new segmentation system for the entire *Sohak*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completed it with a complete written work.

Second, it also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commentary included in *Sohakchaui*. Although *Sohakchaui* has partly included the commentaries of Chinese scholars, most commented extensively used in *Sohakjilseo* are from his mentor, Yi Ik. In particular, Shin's academic methodology is influenced by the School of Seoghohak, mainly accepting Yi Ik's own interpretations about the characters and events contained in the text. Shin's analytic framework made it possible to interpret Yi Ik's ideas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text in reasonable manner. Also it contributed to the field with the strong correlations among the categories of the text, *Sohak*. Shin, therefore, established his own division system of chapters and paragraphs.



Key Words: Shin Hoo Dam's, Yi Ik's, *Sohakchau*, *Sohakjilseo*,  
*Sohakjanggu*, School of Seoghohak, Dividing the  
paragraphs

■ 논문접수 : 2018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8일

■ 게재 확정 : 2018년 4월 16일

